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제2832호 www.metroseoul.co.kr

초등 1~2학년 내년부터 학교 무상돌봄서비스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일부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16년엔 6학년까지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오후 돌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첫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 한국형 첫 기동 헬기 '수리온' 2대가 16일 경기도 이천 배승사격장에서 열린 '2013 육군항공사격대회' 시범 사격에 참가해 적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톡톡! 이 가을 e북 넘기는 소리

전용 태블릿 매달 1만대 넘게 팔려… 20대 29.2% "전자책으로 책 읽는다"

독서의 계절 가을. 올가을에는 종이 책장 대신 터치 화면 넘기는 소리가 요란할 듯하다.

수천 권의 책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층 사이에서 전자책 전용 태블릿이 인기를 얻고 있는 덕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전자책 전용 태블릿이 10여 종에 달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한 달에 1만 대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자책 전용 태블릿인 한국이퍼브 '크레마 샤인'의 경우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등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최초 프론트 라이트 기능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눈부신 조명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6인치 185g 무게에 약 6000권을 담을 수 있다.

인터파크의 전자책 태블릿 '비스킷탭'은 일반적인 흑백 전자 잉크 단말기에서 벗어나 컬러 화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7인치 액정에 무게는 350g으로 책 1만2000권을 저장한다.

월조로 집히는 교보문고의 샘은 전자책 대여 서비스로 화제를 보으는 중이다. 샘은 6인치 202g으로 3000권을 보관할 수 있다.

매년 직장인 독서경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교보문고 독서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볼 때 전자책 독서 비율이 증가할수록 평균 독서 권수도 늘어났다"면서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종이책 판매 부수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인 출판 시장과 IT 디바이스 발달로 전자책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자책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책 독서율은 14.6%다. 국민 100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기기로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이 15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10대 21.5%, 20대 29.2% 등 저연령대일수록 전자책 이용 비중이 높아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평소 전자책으로 소설을 읽는다는 중학교 교사 곽민영(31)씨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보다 가벼운 전자책 태블릿에 책 수천 권을 담을 수 있다"면서 "소설이나 에세이 종류는 한 번 보고 마는 경우가 많아 종이책 소장보다는 전자책이 더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T 기기에 익숙한 독자층이 늘어나면서 전자책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전자책 시장 성장을 위해 전자책의 가격 경쟁력과 콘텐츠 확보율을 높이고, 타 온라인 서점 간의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은희기자 ehrtue@metroseoul.co.kr

라오스서 한국인 3명 사망

기상악화로 항공기 추락 탑승 승객 39명 전원 숨져

라오스에서 16일 항공기가 추락해 한국인 3명을 포함, 승객 3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각)께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남부 팍세로 가던 현지 국내선 항공기가 출발 이후 교신이 두절됐고, 이후 메콩강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항공기는 라오스 에어라인 QV301편으로 프로펠러기종의 소형여객기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무척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당국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인 탑승객 3명을 포함해 탑승객 39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부쩍 생각 많아진 두 사람 민주당 문재인(오른쪽) 의원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각각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이강필 씨, 이홍직 씨, 미재삼 씨 등 한국인 3명이 탑승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추락 사고 현지에 직원들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팍세 지방은 라오스 남부의 유명 관광지로 평소에도 적지 않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재용기자 ls0403@metroseoul.co.kr

상반기 인터넷뱅킹 해킹 18억

신종 금융사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총 18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피해액은 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뱅킹 피해액은 지난 2010년 2억5000만원, 2011년 2억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억2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피해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26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279건을 기록했다.

은행권 공인인증서 유출신고 역시 2011년 57건에서 지난해 156건, 올해 상반기 434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청계천 유지보수비 565억

청계천 복원 후 유지 보수에 사용한 비용이 총 565억에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천 의원은 '청계천 완공 이후 연도별 유지 보수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계천 유지 보수를 위해 총 565억3900만원을 지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평균 75억14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밝힌 연간 유지 관리비 18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윤유리기자

관광경찰 출범 16일 오전 관광경찰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관광경찰대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갖춘 경찰관 50명, 의무경찰 41명 등 10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관광 명소에 배치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불법 숙박 영업, 관광지 범죄 예방 및 기초 질서 유지, 관광 불편 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손진영기자 son@

'4년제 대졸 이상' 공화국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한국 사회가 넘쳐나는 고학력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나친 교육열과 대졸자 과잉으로 한국 사회에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저출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매년 한국 노동시장에는 대졸자 약 5만 명이 초과 공급된다.

지난해 한국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1%에 달했다. 왜 한국인은 대학에 집착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적인 대접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졸자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직장 내 처우도 좋다. 또 상당수 한국 기업의 입사 지원 조건은 '4년제 대졸 이상'이다. 고졸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장애물에 걸려 이력서조차 낼 수 없다.

최종 학력 '고등학교 중퇴'로 미국 최고의 앵커 자리에 오른 피터 제닝스. 고교 1학년을 중퇴한 뒤 소규모 방송국에서 경험을 쌓아 26세 때 미국 ABC방송 간판 앵커로 발탁됐다. 학력보다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고졸자 채용을 장려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와 학력 중시 풍토는 여전히 그 뿌리가 깊다. 간판보다는 자신 능력과 실력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소문난 전통시장 147곳 맛자랑·솜씨자랑

201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통시장 최대 축제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원장 일명재)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13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우수시장박람회는 '행복한 전통시장! 희망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통시장 미래 발전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2004년 첫 개최 이후 평균 참가시장 160여 곳, 관람객 15만 명에 이르는 등 국내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내일부터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매년 15만명 이상 다녀가

이번 박람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47개 전통시장과 지자체, 기업 등이 참가해 500여 가지 우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콘퍼런스를 통해 시장 간 정보 교류와 벤치마킹 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전통시장관, 미래시장관, 상생협력관 등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 먹거리 장터, 청년 창업관 등 200여 개의 실내외 다양한 부스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최첨단으로 발전하는 똑똑한 전통시장 모습이 구현될 예정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전통시장 소개 및 특산물 정보 제공, 증강현실(AR)을 통한 이벤트 정보 제공,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등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전통시장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국 23개 전통시장 유명 먹거리 70여 가지로 구성되는 '야외 먹거리장터'를 비롯해 푸드디자이너 양향자 교수의 지도하에 각 국가별 대표 요리사 10여 명이 그리스 수블라키, 스페인 파에야, 멕시코 케사디야 등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세계 시장 거리' 등 국내 대표 먹거리와 세계 다양한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육의전 체험, 전통시장 사진공모전 특별 전시회, 2013 전국 어린이 백일장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또 여성 타악 그룹 '붐붐'의 공연과 버스킹 콘서트, '젊음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등의 문화 공연을 비롯해 장흥전통시장 민속 타악 공연 혼, 인천 부평 두레놀이 상설의 전통 두레한마당, 'K-팝 전통시장 우리도 간다' 등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홈페이지(expo2013.sija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민기자

'뻥튀기' 수입화장품

SK-II 등 국내 판매가, 수입가의 4~6.5배

이른바 명품 화장품으로 불리는 수입 화장품의 시중 판매가격이 수입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 화장품 표준 통관 예정보고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명 브랜드 수입 화장품의 시중 유통 가격이 관세를 포함한 수입 가격보다 최대 6.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수입액 순위 1위인 일본산 화장품 'SK-II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215㎖)'는 관세 포함 4만145원으로 수입돼 4배나 높은 19만9000원에 팔리고 있다.

또 수입 가격이 5만6826원인 시슬리 에멀전 에콜로지크(125㎖)의 매장 가격은 22만원이며, 피지오겔 크림은 8134원에 수입돼 3만3600원으로 판매된다.

수입 향수의 경우 가격 차이가 더 컸다.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오드뚜왈레트(40㎖)는 1만5917원에 수입돼 9만원으로 유통 중이며, 에리자베스 아덴 오드퍼퓸은 5700원에서 4만원으로 가격이 6.5배나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은 "폭리를 취하는게 되는 화장품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가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박선하기자 psw@metroseoul.co.kr

'경찰 출석요구서 e메일' 파밍 일당 적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e메일과 함께 악성코드를 발송해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금융 정보를 빼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이모(36)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e메일 약 3만 건을 발송, 감염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금융 정보로 돈을 인출하는 파밍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현정기자

마포구, 실버시터 수강생 모집

서울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17일까지 실버건강관리사(실버시터)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5명을 선발해 다음달 15일까지 교육한다. 마포구 및 인근에 거주하는 만 45~58세면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문의 070)7730-0771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한밭사랑복지센터 '파랑새 봉사단'

곰팡이 피던 집이 뽀송뽀송 '러브 하우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가을 문턱에 훈훈한 정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상도) 소속 한밭사랑복지센터 파랑새 봉사단(단장 이창섭)이다.

파랑새 봉사단은 지난 2일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들과 생활하는 한 부모 가정을 방문해 집 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소독, 도배, 장판 교체, 노후 전선 및 전등 교체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불편하고 건강에 안 좋은 주거 환경을 더욱 편리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해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아버지 양모씨는 "집이 오래되고 곰팡이가 피어 아이 건강에도 좋지 않아 항상 마음이 쓰였는데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 봉사단 한밭사랑복지센터 '파랑새 봉사단' 회원이 대전 대덕구 한 부모 가정의 집 수리 봉사활동에 한창이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공

봉사단은 무료 급식, 반찬 나눔, 공부방 운영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베이비부머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도배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기술을 통해 올 한 해 벌써 11번째 기술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혜선 봉사단원은 "활동보조원 일을 하면서 주중에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봉사 후 말끔하게 정리된 방 안을 볼 때마다 힘이 난다"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부머봉사단'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계층 간 지역 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봉사단이다. 베이비부머봉사단의 경우 봉사활동 직전 소요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봉사단 위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668-1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하기자

홈페이지 www.ssn.or.kr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봉사활동을 위해 베이비부머봉사단을 모집 중이다. 또 전출 1회당 자원봉사 4시간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설명의 인증서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사망

1967년 10월 17일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푸이가 61세에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서태후의 교시에 따라 두 살의 나이로 청나라 12대 황제가 된 푸이는 불과 4년 후 신해혁명으로 제위에서 물러났고 청 왕조도 멸망하고 말았다. 군벌과 일본의 야심에 놀아나던 그는 일본 관동군이 세운 만주국의 황제로 추대되었지만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에 지나지 않았고 푸이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일본의 패망 후 소련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그는 53세에 풀려나 식물원 정원사로 일했다. 푸이의 시신은 사후 28년 만인 1995년 황릉으로 이장됐다.

도심 폐가 '반값 임대주택' 변신

저출산·신도시 개발 여파로 불량주거지 빈집 늘자 부산시 지난 5년간 149억 투입해 공동 시설로 정비

부산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인 폐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해로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폐가를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시책의 중요 과제로 추진 중인 폐가 철거 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149억원을 투입, 모두 1670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도 22억원을 들여 330여 동을 철거 중이다.

부산은 한국전쟁 중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주거지가 형성돼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량 주거지가 널려있으나 대부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등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및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불량 주거지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가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폐가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철거 부지를 공원,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방 대학생이나 저소득 서민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해주는 '햇살등지사업'을 펼쳐 빈집과 폐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라는 범시민적 인식 개선과 함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폐가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동의대 2013 U리그 영남권 우승

동의대학교 축구부(감독 송현원)가 2013 카페베네 U리그 에서 영남 2권역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권역 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대학은 지난 11일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배재대에 1-0으로 승리해 무패로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했다.

'스폰서 검사 폭로자' 시의원 협박 돈 갈취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부산시의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모텔과 유흥업소의 탈세 의혹을 언론과 국세청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A(5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시의회 의원인 B(46)씨를 만나 탈세 의혹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에게 건넨 돈이 적다는 이유로 15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010년 전·현직 검사들에게 수십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킨 '스폰서 검사'의 폭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못받은 교통유발금 부산 5년간 34억원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3만908건, 8952억7900만원으로 이 중 체납은 8만2951건, 355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2억400만원(2만6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74억9900만원(2만9702건), 부산 34억1400만원(4783건), 인천 31억5900만원(4076건), 대전 18억800만원(7763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외 편집인 김형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국장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000
독자센터 (02)721-9765

청년작가 평면미술 공모전

BS금융그룹 메세나 활동 일환… 내년 1월 13일 마감

BS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이 부산은행 창립 46주년을 맞아 메세나 활동 강화를 위해 'BS금융그룹 청년작가 평면미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청년 미술인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화와 서양화 평면 작품이 공모 대상이다. 총 상금 규모는 5600만원이며 입상작은 개별 작품이 소개된 책자와 실물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의 지원 자격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967년부터 1993년 이내 출생한 청년 작가로 제한해 지역 청년 작가만을 위한 공모전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BS부산은행 갤러리(부산 중구 신창동 소재)에서 내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된 후 부산은행 영업점과 갤러리 등에 나눠 전시될 예정이다.

BS금융그룹 성세환 회장은 "이번 공모전이 지역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 의지를 북돋고 우수한 작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부·울·경 지역에 문화예술의 정취를 가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 응모 지원 기한은 2014년 1월 13일까지로, 최종 입상작은 2014년 2월 4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BS부산은행갤러리 홈페이지(www.bsgalle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하준기자

'맛의 명품' 군고구마 백화점 입성 16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식품관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이 드럼으로 제작된 오븐에서 바로 구워 판매하는 군고구마를 맛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닥터 Q&A
부산센텀병원 관절센터 진축선 과장

엉덩이 욱신·양반다리 힘들면 고관절충돌증후군 의심

Q 얼마 전부터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면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건가요?

A 아랫배와 넓적다리가 접히는 부분이 아프고, 운동 중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나 양반다리를 했을 때 엉덩이 부위에 참기 힘든 통증이 발생한다면 고관절충돌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대퇴골의 골두, 즉 넓적다리뼈의 상단에 있는 공 모양의 뼈인 골두의 아랫부분인 경부의 모양이 변해 대퇴골두를 싸고 있는 비구컵과 충돌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고관절 자체의 기형, 과도한 스트레칭 및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관절염과 다르게 활동성이 많은 젊은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방치할 경우 극심한 통증은 물론 관절의 충돌에 의해 비구순 파열 및 관절연골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단은 다리를 구부리면서 안쪽으로 회전시킬 때 고관절 통증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비구의 석회화와 구조적 이상을 관찰하고 연골의 파열 여부, 관절 내부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는 먼저 평소 하고 있던 운동이 있다면 중단해야 하며 자세 교정과 약물치료를 비롯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합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고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대퇴골 및 비구의 골을 다듬어 주는 관절성형술을 사용합니다.

고관절내시경 수술은 엑스레이나 CT, MRI 검사로 파악하지 못한 관절 속의 이물질과 손상된 연골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관절충돌증후군 외에도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화농성 관절염, 고관절 안에 떠다니는 관절 내 유리체 제거 등에서 기존 광범위한 절개 대신 최소 절개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관절내시경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 경험이 풍부한 관절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좋으며 수술 후에는 요가나 심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리를 꼬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하며 무릎, 사타구니, 허리 등이 아프다면 간과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삐걱삐걱

부산 2009년 15건 고장서 올해 52건으로 '급증'

부산지하철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지하철과 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총 531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861건, 2010년 1206건, 2011년 1220건, 2012년 1343건으로 매년 늘고 3년 동안 56.0%나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81건이 발생했다.

고장 원인별로는 모터·브레이크 등 구동부 불량이 969건으로 가장 많고, 구동 체인·핸드레일 체인 등 체인부 불량 774건, 핸드레일 벨트·핸드레일 구동장치 등 손잡이부 불량 747건, 디딤판·디딤판 롤러 등 발판부 불량 745건 순이다.

부산지하철은 2009년 15건, 2010년 144건, 2011년 26건, 2012년 32건, 2013년 7월 말 5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412건이 발생했다.

코레일 부산은 2009년 45건, 2010년 26건, 2011년 118건, 2012년 201건, 2013년 7월 말 12건으로 매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총 261건으로 부산지하철 절반 수준을 보였다.

전국에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173건(40.9%)으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고, 서울메트로 914건(17.2%), 한국철도공사 828건(15.6%), 대구도시철도공사 722건(13.6%), 부산교통공사 41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4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 12명, 경상 135명으로 월평균 27명꼴이다.

사고 피해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2명에서 2010년 13명으로 줄다가 2011년 26명, 2012년 36명 올해는 7월까지 4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피해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부품 파손 4건, 제조 불량 2건, 관리 부실과 보수부실이 각각 1건 순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매달 자체 점검을 하고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매년 늘고 사고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동의의료원 '뇌졸중 강좌'

동의의료원(병원장 이인선)은 세계 뇌졸중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의의료원 7층 강당에서 '뇌졸중 이라는 주제로 우리 건강강좌를 마련한다.

동의의료원 신경과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동의의료원 신경과 이상현 진료부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뇌졸중의 이해 및 진단과 치료'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강연 당일 병원 강당을 찾으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문의: (51)850-8732

구조된 바다거북 '동북이' 오늘 바다로 부산아쿠아리움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해 8월 말 경남 거제 여수도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동북이'를 17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방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아쿠아리스트와 투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동북이의 모습.

부산 무역수지 1700만 달러 적자

수입보다 수출 감소폭 커

수입 감소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커 부산지역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

16일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9억9600만 달러, 수입은 8% 감소한 10억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700만 달러 적자가 났다.

수출의 경우 중화학공업 제품 중 선박(-78%), 철강 제품(-22%), 기계류와 정밀 기기(-13%) 등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이 수출 상대국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모두 두 자릿수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미국(15%), 중국(12%)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중동(-58%), 일본(-13%), EU(-11%)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원자재(1%), 자본재(20%), 소비재(6%) 등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2%), EU(5%)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일본(-20%)과 미국(-18%), 중국(-13%)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뉴시스

민자고속도로 '부산~대구' 만족도 최고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대구,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자 평균 만족도는 86.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고속도로별 만족도를 보면 ▲대구~부산이 95.5점으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 90.8점 ▲인천대교 90.5점 ▲서울 외곽 89.3점 ▲천안~논산 88.7점 ▲용인~서울 87.7점 ▲인천공항 85.3점 ▲서울~춘천 78.4점 순이다. ▲서수원~평택은 7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평가 항목별 만족도는 안전성, 정보 제공·편리성의 경우 대구~부산이 각각 97점, 98.1점, 98.1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바다위 산책 '오륙도 스카이워크' 로!

남구 새 명물 오늘 준공식
U자형 강관유리로 제작해 발 밑 파도치는 기분 짜릿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륙도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준공돼 눈길을 끈다.

부산남구청(구청장 이종철)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이종철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륙도 스카이워크 및 홍보관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오륙도 승두말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 쪽으로 9m 나갔다가 돌아오는 U자형 강관유리로 제작됐다. 실제로 걸어보면 발 아래로 30m 절벽과 바다가 보여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구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륙도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벌이기 시작해 그해 10월 디자인 작품 공모와 심사를 마쳤다. 이듬해 9월부터 구조물 분야 공사에 들어가 착공 1년여 만에 완공됐다.

남구 관계자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오륙도 홍보관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남구는 물론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이기대와 신선대 등 인근의 관광 명소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부산 실업자수 6만명
실업률 5개월째 3%대

부산지역 실업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16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의 실업자 수는 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00명(1.6%) 감소했다.

실업률은 지난 5월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 수는 16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1000명(0.7%)이 늘었고, 고용률은 55.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또 3분기 부산의 실업자 수는 6만3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2000명(3.9%)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0.1%포인트 올랐다.

취업자 수는 164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0.3%)이 늘었다.

"위안부 국제적 오해 풀어야"

日 보수언론 또 억지 주장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질 않는 일본에서 보수 언론까지 망언 행렬에 가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을 인정한 '고노담화' 발표 직전에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다. 한국인 피해자 16명을 대상으로 1993년 7월 26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피해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짐에 따라 고노담화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니시오카 쓰토무 도쿄기독교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정도의 규모로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정부 각료와 담당 부서를 설치해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legible]

英 주차딱지 뗀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영국에서 주차 단속에 걸려 80파운드(약 13만6500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을 '용감한' 영국 주차단속원이 적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영국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 상의 올해 수상자로 시상식에 참석 중이었다. 주차단속원이 차에 다가가 딱지를 붙이자 클린턴 전 장관의 경호원들이 옆에서 뛰어나와 승강이를 벌이기 시작했지만 단속원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이국명기자

피치 "미국의회 부채한도 증액 실패 땐 美 신용등급 강등" 경고

2011 금융위기 재연?

태풍 '위파' 日열도 강타…인명피해 속출 최근 10년 사이 가장 강력한 26호 태풍 '위파'가 16일 일본 간토 지역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이날 오후 9시30분 현재 17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시간당 122.5㎜의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은 위파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도쿄 남서쪽 가마쿠라 주택가에는 거대한 바윗덩어리들이 도로의 끝 마당까지 덮쳤다. /AP 뉴시스

17년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금융위기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2011년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negative watch)에 뒀다면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으로 가장 높은 'AAA'를 부여하고 있지만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이는 정부 부채 상한 문제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던 2011년 8월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미국 주가가 순식간에 15% 이상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반년 이상 혼란에 빠졌다.

현재 미국 여야 지도부에서는 시장 초유의 미국 정부 디폴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주도한 공화당이 최대 목표인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을 사실상 포기해 나머지 쟁점들은 여야 간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앞으로 몇 주는 디폴트 위기를 넘길지라도 진짜 문제는 내년"이라며 "정치가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market index <당일>

코스피	코스닥
2034.11 (-6.35)	525.88 (-7.44)

금리	환율
2.87 (-0.01)	1077.00 (+2.50)

뉴스&뉴스

동양증권서 최근 10조 이탈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사태가 터진 지난달 23일 이후 전날까지 동양증권 금융투자 상품에서 인출된 금액이 9조9800억원에 달했다. 사태 직전의 잔액(16조원)에서 60%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CMA 강자로 평가받던 동양증권의 고유영업 특성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김현정기자

반듯한 시간제 시급 7630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2010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지원을 받은 365개 기업의 평균 임금은 4주를 기준으로 79만3500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7630원으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보다 약간 높다. /이재영기자

"굿바이, 펀드" 29일째 4조 이탈

순유출 역대 최장 기록… 코스피 2000 안착에 수익실현 행진

2000선대에 안착한 코스피가 전날엔 2040선 등파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순항이 계속되면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서는 연일 환매세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이탈한 자금만 4조원이 넘는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총 3174억원이 이탈했다.

이로써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유출은 총 29거래일째 지속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했다. 이 기간 누적 순유출액은 4조232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의 순유출 지속 기간이 30거래일에 육박한 가운데 투자자의 관심은 어떤 펀드에서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는지에 쏠리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전날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간 상품은 'NH-CA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1호)'으로 약 2870억원이 이탈했다.

이 기간에 이탈한 자금 규모 기준으로 상위 20개 펀드 중 14개가 액티브 펀드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돌아서면서 펀드 환매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박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보통 코스피가 상승할 때 환매 수요가 발생하는데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60원대로 하락해 외국인의 매수세와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하면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잦아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kjuni13@metroseoul.co.kr

갤S4 8월 판매량 '글로벌 1위'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전화 '갤럭시S4'가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S4가 8월 한 달간 약 500만 대가량 팔려 스마트폰 최다 판매 1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S4 미니 등 변종 제품과 갤럭시S 듀오, 갤럭시 yf영 갤럭시 트렌드 등 다른 갤럭시 브랜드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난 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외에도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갤럭시S3, 갤럭시S4 미니 등 제품 4종을 추가로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제품 5~8위에 올렸다. 많이 팔린 제품 10종 가운데 5종이 삼성전자 제품인 셈이다.

/박성훈기자 zen@

쇼핑 할인 알뜰폰 구매하세요 16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소핑 할인 알뜰폰을 선보이고 있다. 소핑 할인 알뜰폰은 상품 구매액에 따라 통신비를 추가로 할인받거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도 있다. /뉴시스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19일 개막

포항서 29개팀 2부문 경합

산업통상자원부·경북도·포항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2013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경북 포항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포스코 산학협동재단·득아랑·유엔코리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15회째로 지능 로봇(19일), 퍼포먼스 로봇(20일)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로봇, 상상에서 일상으로'란 주제로 미래 로봇 창의 인재에게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발명 마인드를 심어주자는 목표로 진행된다.

본 심사에는 지난 6월 사전 심사를 통과한 지능 로봇 부문 20개 팀과 퍼포먼스 로봇 부문 9개 팀이 경합을 벌인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6대 로봇 연구기관과 경북 로봇 기업 등은 기술 분야 심사자로 참여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로봇 콘텐츠를 확보해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인 로봇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4대강 담합' 판정에 뿔난 대형 건설사들

23일부터 공공입찰 제외 업계 "4대강 때문에 적자 2차 피해 저지 소송 불사"

정부와 건설업계 간 전운의 감돌고 있다. 조달청이 16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에 담합 비리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업체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공공 공사 분야에 입찰이 제한돼 수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담합 비리 판정을 받은 업체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 공공 공사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 대형건설사의 공공 공사 분야 매출은 15%에서 30%에 이르러 수십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은 입찰 제한 대상 매출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17%에 달하고, 대우건설도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27.4% 수준이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의 18% 수준인 1조7000억~1조8000억원가량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담합 판정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4대강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져 해외 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송 등 저항의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해 23일부터 입찰제한 효력을 정지시킨 후,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대균기자 kaat@metroseoul.co.kr

전기차 향한 뜨거운 시선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미니 신도시급 SK단지 인천 상륙

SK건설 남구 용현동에 'SK 스카이뷰' 3971가구 분양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604-1번지(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총 3971가구의 인천 SK 스카이뷰(Sky VIEW)를 이달 중으로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단일 브랜드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로서 미니 신도시급이다.

지하 2층~최고 지상 40층의 총 26개 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59~127㎡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800가구 ▲84㎡ 2282가구 ▲95㎡ 295가구 ▲100㎡ 239가구 ▲107㎡ 156가구 ▲115㎡ 138가구 ▲126㎡ 22가구 ▲127㎡ 39가구 등이다.

특히 양도세 혜택을 받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비중이 전체의 77%에 달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780만원에서 기준층(5~21층) 가격으로 평당 88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SK건설 측은 "이는 올해 인천지역 9월 평균 분양가(1244만원)와 비교해 크게 저렴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 2순위, 25~28일 3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이며 계약은 11월 11~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6월이다.

오는 18일 개장하는 견본주택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604-1번지(홈플러스 인하점 건너편 현장 내)에 위치한다.

문의 032)876-3971, www.skyssk.co.kr /유현희기자 hjkim1@

동원로얄듀크 미사강변도시 '노크'

중소형 808세대 선보여

동원개발이 지난 11일 미사강변도시 A-22블록에 동원로얄듀크를 선보였다. 동원로얄듀크는 74㎡, 84㎡의 두 가지 타입, 총 808세대 규모로 구성돼 있다.

미사강변도시 첫 관문인 A-22블록에 위치한 동원로얄듀크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강일역(예정)과 불과 500m 떨어진 역세권이다. 천호~하남 간 간선급행버스의 개통 교통의 요충지 상일IC와 가까워 미사강변도시 내에서도 송파, 잠실과 강동 천호로의 출퇴근이 가장 편리하다. 인근에 쇼핑, 레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는 계약자들에게 추가 부담 없이 전 세대에 지하 창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하 주차 공간은 여성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좌우폭을 10cm 더 넓힌 2.4m 광폭 주차장을 적용했다. 고급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상 주차 공간을 없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1층과 최상층 세대에는 침입자를 감지하는 동체감지기를 설치했다. 문의 1566-9300

/유현희기자 mrnjo@

양변기 배송-설치-폐품수거 '원스톱' 대림바스는 쿠팡·티몬과 제휴 해 이달 31일까지 배송·설치·제품 수거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양변기 교체 서비스를 14만9000원에 특가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림바스 제공

SBI 저축은행 '스피드론' 재직기간 상관없이 대출

재직 기간이 짧아 금융권 대출이 거절된 직장인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직·신규 취업으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SBI저축은행의 '스피드론' 상품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스피드론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1000만원까지 즉시 송금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화·스마트폰 앱으로 한도 조회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더 큰 한도가 필요하다면 은행 수준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직장인대출을 추천한다. 문의 1600-8581

최문기 애매-이경재 뚝심

미래부 장관·방송통신위원장 국감 대처 '대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감 대처 모습이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14일 미래부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창조경제'의 실체와 가계 통신비를 둘러싼 통신비 원가 자료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가 다음 정권에도 존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관도 과연 창조경제가 뭔지 아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항소를 하고 있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압박에 최 장관은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 등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던 최 장관은 이날 오후 들면 "항소를 취하한 뒤 이후 자료 공개를 하겠다. 다만 항소 시기는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도 보였다.

최 장관의 국감 대처 태도에 한 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공부 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비난했다.

이어 15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선 이경재 방통위원장에 대해 종편 사업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일부 수긍하며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채널A에 대한 동아일보 우회출자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침착히 맞섰다. 이후 같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정회된 뒤 "하루 더 방통위 국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하루 더 진행해도 걱정 없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통위 국감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4선 의원 출신이라 노련한 것 같다"면서 "여당 출신인 만큼 여당 측의 공세도 다소 약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네이버 이해진 '1조원 클럽' 첫 진입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벤처기업 출신 최초로 1조원대 주식갑부로 등극했다.

1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의장의 주식지분가치 평가액은 1조454억원(15일 종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5058억원 규모였던 이 의장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15일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면서 1조원 벽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의장의 1조원 클럽 가입으로 1조원대 주식부호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이건희 회장이 11조7368억원으로 1위 자리를 지켰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조1522억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3조40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24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국현기자 lkh@

대기업 CEO 64% 재선임 실패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3명 중 2명은 재선임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임 가능성은 작았다.

16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연말 재계의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500대 기업 퇴직 전문경영인 516명의 재직 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임기를 한 번이라도 넘긴 재직자는 총 188명으로 36.4%에 불과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간 재직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수는 10명 안팎으로 많지 않다.

/박상용기자 (illegible)

'80세 가입' 문턱 낮춘 암보험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고령자에게 암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이다. 라이나생명의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가능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현기자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게이머의 후원으로 쌓인 쌀을 캄보디아 초등학교에 무상 지원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프리 라이스'로 모은 쌀을 엔씨소프트 직원들이 직접 운반하는 모습.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제공

퀴즈 풀고 쌀 적립 '식량기부 게임' 떴다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세계식량의 날 맞춰 '모바일 프리라이스' 국내 무료배포 화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의미있는 선물을 나눴다. 기부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모바일 프리라이스'를 16일 국내에 무료 배포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협조 아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이 게임은 퀴즈를 즐기면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기부할 수 있는 공익 게임이다.

영어 단어와 영어 문법, 화학기호, 명작 그림, 문학 작품 등 15개의 카테고리의 퀴즈를 맞힐 때마다 쌀이 적립되며, 적립된 쌀은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을 통해 실제 식량으로 기부된다. 특히 영어 퀴즈는 미국 대학 입시시험인 SAT 수준으로 제작돼 학습 효과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 5번째 공익게임 '푸드포스' 선봬

엔씨소프트는 앞서 '프리라이스'(www.free-rice.co.kr)를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서비스해왔으며 이번에 내놓은 것은 이 게임의 모바일 버전이다.

엔씨소프트는 2008년에도 WFP와 공동 협약을 맺고 긴급 구호 활동을 다룬 공익 게임 '푸드포스'를 선보인 바 있다. 2011~2012년에는 WFP와 공동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30만 달러 상당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도 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구나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식량도 기부할 수 있는 모바일 프리라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세계 기아퇴치 운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게임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프리라이스'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내려받은 뒤 페이스북에서 로그인하면 플레이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프리라이스 출시를 기념해 30일까지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 중 200명을 추첨해 캐릭터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벌인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지적장애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인지니' 연말께 무료 배포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기능성 게임 개발·공급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게임이 '인지니'다. 이 게임은 엔씨가 2009년부터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인지 연령이 18~36개월인 지적장애 아동을 타깃으로 인지 치료와 생활을 돕기 위한 아이패드 기반의 타이틀이다.

◆ 게임의 사회공헌 새 장

현재 아산병원에서 진행 중인 지적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에서 연말께 한글 버전 제작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총 12가지 게임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에 집중한 게임 구성, 그리고 깨끗한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특히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 능력 수준을 단계별로 진단할 수 있어 치료 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수상한 가정부' 동시간 1위

배우 **최지우**가 주연을 맡은 SBS 월화극 '수상한 가정부'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15일 방송된 '수상한 가정부' 8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1.1%(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지난주 종영한 KBS2 '굿 닥터'에 고전하던 '수상한 가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로 긴장감을 높이며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햇살 좋은날' 日 싱글 정상

JYJ **김재중**이 첫 솔로 정규앨범의 선공개곡 '햇살 좋은 날'로 일본 아이튠즈 싱글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이 곡은 15일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올랐고, 일본 아이튠즈 차트 1위는 올해만 다섯 번째다. '햇살 좋은 날'은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남자의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발라드다. 이 곡은 태국 홍콩 대만 아이튠즈 싱글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SBS '별에서 온 남자' 출연

배우 **박해진**이 전지현·김수현과 한 배를 타고 1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그는 12월 방영될 SBS 새 수목극 '별에서 온 남자'(가제) 출연을 확정했다. 올해 초 끝난 KBS2 '내 딸 서영이' 이후 1년여 만의 드라마 출연이다. 박해진은 이 드라마에서 재벌 그룹의 후계자이자 전송이의 약혼자 이휘경의 형인 이재경 역을 맡는다.

5개월만에 신곡 '유후' 발표

엠넷 '슈퍼스타K 4' 출신 가수 **유승우**가 22일 새 디지털 싱글 '유후?'를 발표한다.

'유후?'는 5월 데뷔 음반 '첫 번째 소풍'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의 신곡이다. 브라스 멜로디가 돋보이는 경쾌한 어쿠스틱 사운드에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진 곡으로 래퍼 산이가 피처링을 맡았다. 유승우는 여날 티저 영상과 티저 이미지를 선보였다.

하정우 감독, 내 사생활 접수

오늘 개봉 영화 '롤러코스터' 주연 정경호

17일 개봉하는 영화 '롤러코스터'가 가을 극장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순제작비 5억원의 저예산 영화지만 할리우드 대작과 쟁쟁한 감독·배우가 등장한 한국 영화들 틈에서 가파른 예매율 상승을 보이며 흥행 예감을 전하고 있다. 인기 배우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주인공 정경호(30)의 열혈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개봉을 앞두고 그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흥분돼 보였다.

◆ 10년만의 의기투합 인터뷰 70개 끝이야

정경호는 개봉 전후로 6개 TV와 5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3주간의 전국 무대 인사, 12개 화보 촬영을 포함한 70여 개 매체 인터뷰 등 영화계에 전무후무한 홍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영화를 처음 선보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4박5일간 개막식 레드카펫 참석을 비롯해 영화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참석했다. 영화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일정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다 해낸 배우는 역대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랜 만에 영화에 출연하게 돼 업계에 인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죠. 아무리 일정이 빡빡해도 힘이 나요. (하)정우 형은 군도' 촬영 중임에도 20여 일이나 빼고 함께 홍보를 해주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하정우 감독은 영화 알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정경호의 사생활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술 마시지 말기,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보고하기, 비타민 등 각종 영양제 챙겨 먹기 등도 주문했다.

이런 명령과 복종이 가능한 것은 두 사람이 그만큼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중앙대 연극학과 선후배로 10년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해 여름 정경호가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무렵 미리 캐스팅을 예약해뒀고, 정경호 역시 시나리오를 보고 20분 만에 출연을 결심했다.

"10년 만에 온 기회인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동안 연극·영화 등 같이 작품을 하자고 다짐만 하고 여러 번 기회를 놓쳐서 아쉬웠는데 정말 기뻤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하루 빨리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런 열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정우 형 덕에 많이 덜었어요."

각별한 10년지기 하정우 군대 말년 휴가 때 만나 20분 만에 캐스팅 약속

기존 훈남 이미지 뒤집는 재수없는 한류스타 역할 육두문자 연기 '퍼펙트!'

◆영화 제목 만큼 좌충우돌했던 촬영기

그의 말대로 촬영 과정은 욕구 해소와 탈의 연속이었다. '롤러코스터'는 '육두문자맨'이라는 영화로 일약 한류 스타가 된 배우 마준규가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겪는 해프닝을 다룬 작품이다. 정경호는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화끈한 욕설을 줄곧 뱉어내는 동시에 재수 없는 연예인 연기를 제대로 해냈다.

"한마디로 정말 재미있었죠. 이쪽 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연예인병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려봤어요. 그걸 막상 해보고 모니터로 지켜보니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정말 얄미웠죠. 그러면서 묘한 대리만족의 쾌감도 느꼈고요. 연습 때부터 4개월간 함께 작업하는 형들 앞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을 해댔는데도 늘 칭찬을 받았어요. 하하."

지난해 12월 전역한 이 영화로 제대로 몸을 푼 정경호는 5~7월 방송된 JTBC 드라마 '무정도시'에서 마약 조직 보스를 연기해 호평받았다.

"제대 후 두 작품은 하면서 연기 재미에 푹 빠졌어요. 이 작품들에서처럼 성격이 분명한 인물을 또 한 번 연기하고 싶어요. 정우 형이 연출하고 출연할 '허삼관 매혈기'에도 한 자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설마 모른 척 하진 않겠죠."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Life tastes great. WMF

160년 만에 찾아온 기회!

WMF 160th anniversary SALE

Promotion 1 (10월 13일 ~ 10월 20일)

[리퍼브]갈라플러스 4종세트 세트가 934,000원 우대가 499,000원

백화점별 10세트 한정 / 16cm(L) 20Cm(L) 20Cm(H) 24Cm(L)

다용도 곰솥 14L
199,000원

파스타 찜기 18Cm
102,000원

갈라플러스 1종세트를 구입하신 고
사은품

Promotion 2 (10월 25일 ~ 10월 27일)

프로빙스 5종세트 세트가 699,000원 우대가 399,000원

백화점별 3세트 한정 / 16cm(L), 16cm(H) 20Cm(L) 20Cm(H) 24Cm곰솥

160,000원

후라이팬28Cm + 유리뚜껑
55,000원

시장조사 전문기관 GFK (2012 독일 시장점유율 기준 1위)

독일 No.1 WMF는 철저한 독일 장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60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품질의 주방기구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가 사용하는 독일 No.1 주방기구, WMF

소문난 절친 '패션퀸' 대결

티파니·보라, SBS '패션왕 코리아'서 서바이벌 경쟁

소녀시대 티파니와 씨스타 보라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SBS 디자인 창조 프로젝트 '패션왕 코리아'(이하 '패션왕 코리아')에 출연하는 두 사람은 16일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우리가 전함께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티파니는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아 쉴 때는 서로 집에 놀러가는 사이다. 공개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함께하게 돼 굉장히 들떴다"고 소감을 전했다.

티파니와 보라는 평소 서로의 무대 의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티파니는 "씨스타에게서 건강미 넘치는 화려함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소녀티은 특징이 있다"고 했고, 보라는 "소녀시대의 소녀다은 면을 배은다"고 화답했다.

'패션왕 코리아'는 8명의 스타와 국내 대표 디자이너 8명이 한 팀이 돼 협업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절친한 친구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하는 두 사람은 평소 자신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상대의 장점도 배우겠다고 밝혔다.

티파니는 "여성적이고 페미닌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둘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보라는 "록 시크를 좋아한다. 마지막까지 둘이 같이 올라가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6일 열린 '패션왕 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 소녀시대의 티파니(왼쪽)와 씨스타의 보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7일 첫 방송 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티파니와 보라 외에 윤건, 김나영, 불 등이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tvN 대국민 창직 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VISITING GARDENER
DREAM
Trail Builder
Brew master
창조적 직업의
탄생!
OUTDOOR BBQ
LOVE
Sign Spinning
Sale
PET STUDIO
Job Creation

돌아왔다! 일본

조용필, 15년 만에 활동 재개

올해 가요계에 관록의 힘을 보여준 가수 조용필(사진)이 일본으로 '가왕' 신드롬을 몰고 간다.

조용필은 4월 출시한 정규 19집의 일본판을 16일 한·일 동시 발매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활동하며 원조 한류스타로 큰 인기를 얻었던 그는 1998년 현지에서 마지막 공연을 펼친 지 15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활동을 재개한다.

◆ **새 앨범 내고 단독공연도**

현지 매체들은 이미 올해 국내에서 열린 조용필의 전국투어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고, 현지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 '쥡(Zip)!' 등에서는 '헬로'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며 앨범 발매 소식을 다뤘다.

유니버설뮤직코리아는 "타이틀곡 '헬로'에 2PM의 택연이 영어 랩 피처링을 맡아 조용필씨가 일본 내에서도 세대 통합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용필은 앨범 발매와 함께 다음 달 7일 도쿄 국제포럼홀에서 단독 공연 '헬로 스페셜'을 개최한다.

이번 일본 활동에 국내 팬들의 관심도 커 유니버설뮤직코리아는 19집의 한정판('헬로'와 '걷고 싶다' 뮤직비디오 및 전국투어 영상 DVD 수록)과 일반판을 각각 300장씩 수입해 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어 버전의 '바운스', '헬로', '걷고 싶다'는 국내 음원 사이트에도 공개됐다.

한편 택연이 소속된 2PM은 16일 일본 새 싱글 '윈터 게임즈'를 출시해 흥행 인기몰이에 나선다. '윈터 게임즈'는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섯 남자들의 쓸쓸한 사랑이 느껴지는 곡으로 이미 현지 최대 벨소리 차트인 레코초쿠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엑소 '못하는 게 없소'

윤아 등과 SKT 새 모델
찬열은 SBS '정법' 출연

올해 가요계를 장악한 무서운 신예 그룹 엑소가 방송·광고계로 열풍을 몰고 가고 있다.

엑소의 찬열은 SBS '정글의 법칙' 미크로네시아 편 출연을 확정하고 21일 출국한다.

데뷔 2년차 신인 그룹인 엑소는 올해 발표한 정규 1집 'XOXO'와 리패키지 음반을 합쳐 9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국내 음반 시장에서 12년 만에 100만 장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열기는 광고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코오롱스포츠 등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는 최근 SK텔레콤의 새 모델로 발탁돼 소녀시대 윤아·에프엑스 설리 등과 함께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찬열은 18일 출시될 선배 가수 케이윌의 신곡 '촌스럽게 왜 이래'의 뮤직비디오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모델 이호정과 애틋한 사랑 연기를 펼친다.

/유순호기자

엑소 다운점퍼 화보 공개

코오롱 스포츠가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다운 화보를 공개해 화제다.

엑소 멤버들은 이번 화보에서 코오롱 스포츠의 헤스티아와 밴텀을 바탕에 테라노바 안타티카를 입었다. 헤스티아는 코오롱 스포츠의 시그니처 다운 제품으로 최고급 슈퍼화인 구스 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MCM 면세점 매출 '대박' 최근 3년 평균 100% 증가

독일 명품 브랜드 MCM은 최근 3년간 면세점 매출이 연평균 100% 늘어나는 등 '대박 행진'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에서 올해 1~9월 MCM의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늘었다.

MCM의약진은 면세점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올 1~9월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 매장 매출이 70% 이상 성장했다.

MCM 관계자는 "특히 이번 중국 국경절 기간 전체 매출은 130%가량 늘어났다"면서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의 국경절 기간 매출 상위 브랜드 20개 중 MCM이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선포 코레일관광 고객감동 다짐

코레일관광개발은 최근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선포식을 갖고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문화 선도를 다짐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날 선포식과 함께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동석 경영지원실장을 소비자중심경영 최고 고객 책임자로 임명했다. 또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와 임직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 훈련을 실천키로 했다.

예민한 가을신발 '모발 다루듯'

가죽 스프레이로 표면방수 스웨이드 브러시질 해주고 악취나면 동전 넣어 보관을

대학생 정송이(21·여)씨는 선선해진 가을을 맞아 가죽 소재의 워커부츠를 신고 나갔다. 낭패를 봤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신발이 흠뻑 젖었는데, 급한 마음에 신발을 드라이어로 말렸더니 가죽이 뒤틀려 아예 신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름용 샌들, 레인부츠를 벗고 가을 신발로 갈아 신을 때다. 가죽 부츠, 스웨이드 로퍼 등 가을을 대표하는 신발들은 소재 자체가 오염되기 쉬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죽 소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에 젖었을 경우에는 마른 천으로 꼼꼼히 닦아준 후 그늘에서 말린다.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이나 햇빛에 노출되면 가죽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신문지 넣어 보관하면 습기제거

애초에 가죽 스프레이나 보호 크림을 발라 가죽이 젖는 것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평소 가죽 제품을 보관할 때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놓으면 습기제거와 모양 유지에 도움이 된다.

스웨이드 소재는 먼지가 들러붙기 쉽다. 정기적으로 스웨이드용 브러시로 먼지만 제거해도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다. 보관 시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넣어두면 악취가 제거된다.

러닝화 역시 합성섬유를 사용한 경우 물세탁이 가능하지만, 스웨이드나 가죽 등 다른 소재가 섞여 있는 경우는 나눠서 세탁해야 한다. 솔이나 칫솔 등을 활용해 부분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고, 안감은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빨아준다. 베이킹소다, 치약 등을 살짝 묻혀 문지르면 묵은 때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ABC마트 상품개발본부 강범조 본부장은 "가을철 잠깐 신는다고 관리마저 소홀하면 신발 수명이 짧아진다"며 "소재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주한외국인 국내관광 후 업무 향상

코스모진 사례 소개 눈길 "문화차이 이해도 커진 덕"

국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험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경험한 뒤 사내 문화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은 주한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국내 관광을 체험한 뒤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S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 중인 L씨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투어를 하고 나서 동료들에게 진짜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모진 관계자는 "비무장지대(DMZ) 투어, 서울 시내 투어 역시 문화 투어 등을 통해 업무 때 느낄 수 없었던 한국의 문화·정서 등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투어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업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주한 외국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모진 정명진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 L사에서도 얼마 전 코스모진을 통해 현지 근로자들을 초청해 국내 투어를 하게 했는데, 이후 이들이 국내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후기를 들려줬다"며 "다른 문화와 정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빠르게 이해하는 데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구호 스타일 역동적이네

제일모직의 여성 브랜드 구호가 1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10주년 기념 패션쇼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구호의 가을·겨울 시즌 의상 30점과 지난달 파리 컬렉션에서 호평받은 헥사바이구호의 내년 봄·여름 컬렉션 30벌을 선보였다. 이번 가을·겨울 의상은 여성스러운 라인을 살리는 동시에 자수와 입체적인 재단을 통해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제일모직 제공

으슬으슬 이맘땐 한우사골곰탕이 최고

강강술래 최고 40% 할인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환절기 고객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을 파격 할인 판매한다.

곰탕 소용량선물 세트(350㎖×5팩·10인분)는 1만8900원, 10팩짜리 세트(350㎖×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하며, 구입 시 울인원 쥬크 화장품(1만원 상당)을 무료 증정한다.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0% 할인된 3만7800원에 구매 가능하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방부제, 색소, 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면역력 증진, 골다공증 예방, 기력 보충에도 좋다.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탄돈너비아니(3세트·1.08kg)는 40% 할인된 2만1600원에 판매하며, 100% 한우 갈빗살을 사용한 찰진한우떡갈비(3세트·1.08kg)도 4만2000원에 30% 할인가로 선보인다.

고양 늘봄농원점(031-965-2300)은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우암소 스페셜·생등심 보등구이와 강강 술래·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한우 불고기를 무료로 포장해준다. 한돈 또는 돼지양념구이 메뉴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포장해준다.

테이크아웃용 포장 상품도 파격가로 선보인다. 한우 불고기(500g)는 65% 할인된 1만2000원, 한돈양념구이(900g)는 1만5000원(50% 할인), 돼지양념구이(500g)는 1만원(45% 할인)에 구입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하루종일 스마트폰, 목디스크로 이어진다

고개 푹 숙인채 화면만 바라보면 경추에 부담 가중돼 목디스크로 발전
일찍 병원 찾아오면 수술 아닌 15분간의 시술만으로도 가볍게 통증 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김모(23)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대학생인 김씨는 특히 지하철을 타고 등교할 때 스마트폰이 가장 집중하는데 등교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과 쇼핑 등을 하며 지루함을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목에 뻐근함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화면을 보는 자세가 문제가 된 것. 증상은 점점 심해져 목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파왔고 김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하면 목디스크 가져와

진단 결과 김씨는 목디스크였고 다행히 고주파수핵감압술이라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 디스크를 바로잡고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세바른병원 강남점 정성삼 대표원장은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목디스크는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과 자세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원장에 따르면 특히 오래 앉아있으면서 고개를 앞으로 빼거나 숙이는 자세는 목뼈(경추)에 좋지 않은데 스마트 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자세로 기기를 이용한다.

따라서 목디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을 지나치게 숙여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를 최대한 고개를 반듯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만 아래로 두는 자세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 사용하는 중간중간 목을 좌우상하로 돌리는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목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성삼·김주현 세바른병원 강남점 대표원장이 플라스마감압술로 목디스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젠 디스크 치료도 간단한 시술로

만약 목디스크가 발병했다 하더라도 일찍 병원을 찾는다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시술은 김씨가 받은 고주파수핵감압술이다.

김주현 세바른병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해 디스크 주변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하고 팽창된 디스크의 크기를 감소시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첨단 시술"이라고 시술을 소개했다.

환부에 고주파를 적용하는 데는 아주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이용하므로 국소마취 후 피부 절개 없이 15분 정도면 시술을 마칠 수 있다. 또 통증을 전달하는 감각 신경만 선택해 파괴하므로 운동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주파 대신 플라스마 광을 이용하는 플라스마감압술도 주목받고 있다. 정확성이 높은 플라스마광은 뼈나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디스크 내부를 감압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이다. 이 역시 치료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환자는 시술을 받은 당일 퇴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 1588-3094

/황재용 기자

종아리야, 논바닥이야

쌀쌀한 날씨에 튼살 주의보…레이저 치료 효과적

쌀쌀한 날씨에 줄어든 활동량으로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 튼살이 생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튼살은 피부가 늘어나면서 종아리, 허벅지, 배 등의 피부가 찢어지는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살이 찐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많이 생긴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튼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튼살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와 같은 활동량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근력운동으로 피부에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물을 자주 마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주고, 샤워 후에도 보습 크림을 반드시 바르는 게 좋다.

만약 튼살 치료를 원한다면 붉은색을 띠는 초기에 레이저 치료를 통해 튼살 진행을 막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료 시기를 놓쳐 하얀색으로 색이 변한 백색 튼살 역시 레이저를 통해 새살을 돋게 할 수 있다.

연세스타피부과 권연숙 원장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튼살이 생겼다면 전문의의 도움으로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마음의 고통, 책으로 함께' 교보문고서 특별 도서전

한국얀센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20일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특별 도서전 '마음의 고통, 책으로 함께 나눠요'를 진행한다.

한국얀센은 친숙한 책을 통해 정신질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전문의와 교보문고 북마스터의 추천을 받아 소설, 수필, 동화 등 총 20여 종의 도서를 전시·판매한다. 특히 치료를 통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조현병 환자들이 직접 그린 회화 10여 작품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함께 전시한다.

/황재용 기자

단풍 보려다 골병 들겠네!

산악 안전사고 10월 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산악 안전사고로 총 13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그 피해가 가장 컸다. 단풍철을 맞아 가을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안전 예방 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는 우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등산 전 평지 걷기 등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면서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스트레칭을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배낭 무게는 몸무게의 10% 이하로 꾸리고, 산이나 숲 속의 낮은 기온에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산행 중에는 나뭇가지를 잡고 오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건조한 기후로 인해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폐경기 이후 여성 골절 주의

뼈나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산행을 하면서 크고 작은 충격으로 척추압박골절이나 척추후관절증후군 같은 척추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납작하게 내려앉는 질환이며 척추후관절증후군은 척추를 지지해 주는 척추 후방의 관절이 외부 충격 등으로 비틀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산행을 할 때 사소한 충돌이나 넘어짐을 조심하고 이상을 느끼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바른세상병원 박성준 원장은 "산행을 마친 후 피로감을 느낄 때 냉찜질을 해주면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고 아침저녁으로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만약 산행 후 요통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유황온천으로 이름 난 도고 온천의 바데풀. 아래 사진은 온양온천

"으~좋다" 왕도 이맛에 온궁행차

아산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20일까지 뜨끈한 유혹

13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국내 최대 온천도시 아산에서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충남도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양·도고·아산온천에서 '온궁의 부활'을 주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는 물을 보여준다.

◆왕이 되는 온천 - 임금 목욕 재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조선 왕실 온천 방식의 부활이다.

이번 축제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는 조선시대 왕들이 주로 이용했던 온양행궁인데, 행궁은 임금이 거둥할 때 머무르는 별궁을 말하며 온양행궁은 임금이 온양에서 온천을 하면서 국사를 보던 별궁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고증을 거친 왕의 목욕법이 재현되며 참가자들도 상궁의 안내에 따라 왕의 목욕법을 체험할 수도 있다.

또 온양행궁의 재현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왕의 온양행궁 행차 행렬 재현 프로그램이 하루 3회씩 진행된다.

이 밖에도 축제는 유황온천으로 현재 큰 인기를 보으는 도고온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산온천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의 기회를 제공한다.

◆온천 효능, 몸으로 쏙쏙 만끽

축제는 목욕 개념에서 벗어나 온천을 의학에 접목해 아산시가 지난 3년간 연구해 밝혀낸 한방 온천 의료 시스템 성과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준비되는데 우선 온천의료 관광산업전이 눈에 띈다. 산업전에는 ▲대전대 한의대 부속병원 및 온천의료센터 ▲은지과 병원 등 아산지역 개인병원 ▲호서대학교 화장품학과 ▲이로미 뉴텍 등 화장품 관련 업체가 참여하며 행사장에선 아토피 및 피부질환 개선 체험(온천수 분무 등 사용), 족부 각질 및 순환 개선 체험(족욕제 족욕 등), 구취 및 치주질환 예방 체험(온천수 가글액 등), 체질 진단 및 입욕 프로그램 처방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온천 뷰티산업 전시회에선 뷰티 체험으로 얼굴 마사지(온궁 마스크팩 사용), 족욕 체험(온궁 족욕제 사용), 온궁화장품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목욕 용품, 화장품, 네일 아트, 얼굴 피부 진단, 온천의료 체험, 뷰티 체험 대기실 운영 등 뷰티상품전시회도 열린다.

◆개막축하 '컬투쇼' 공개방송도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흥을 돋우는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먼저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두시탈출 컬투쇼' 공개 방송이 17일 온양온천역 광장 주 무대에서 열리며 18일 저녁에는 온양온천역 광장 주 무대에서 워터 파티가 진행된다. 워터 파티에는 개그맨 김기리씨의 사회로 노라조, 노브레인, 로열파이럿츠, 에픽하이 등이 출연한다. 온천수를 활용한 특수 효과(워터 캐논, 워터 건, 워터 스크린, 워터 커튼 등)도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온천수를 활용한 물놀이 온천수 난장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온천수 놀이마당에서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0월 16~20일
- 장소: 충남 아산시 온양·아산·도고온천
- 문의: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041) 540-2904

이순신·맹사성 옛집 거닐며 역사 여행

온천만큼 깊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산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여럿이다.

◆충무공의 얼을 기리는 현충사

현충사(사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온양온천에서 4km 떨어져 있어 온천을 즐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다. 본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유물관에는 일생 기록인 쌍검도와 국보 76호인 난중일기, 보물 326호인 장검 등이 전시돼 있다. 또 경내에는 충무공이 살던 옛집, 활터, 정려 등도 마련돼 있다.

◆우리 민족 발자취 탐구

온양민속박물관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와 민속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해 우리 고유 전통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정문을 들어서면 연지방아, 디딜방아, 너와집 등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민속 자료 2만여 점을 4개의 전시실과 1개의 소전시실로 나눠 13개 분야로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고택의 고즈넉함에 빠지다

맹씨행단은 맹씨가 사는 은행나무 단(壇)이 있는 집이란 뜻이다. 조선 초의 명정승 고불 맹사성(1360~1438)의 옛집을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살림집 가운데 가장 오래 옛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 현재 사적 109호로 지정돼 있다. 고즈넉한 고택과 낙엽을 밟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소래포구축제

- 날짜: 10월 18~20일
- 장소: 인천 소래포구 일원

축제는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소래를 노래하자'를 주제로 개최된다. 참여형 체험 축제를 테마로 하는 만큼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청소년 어울림 문화 공연, 소래 뮤직토크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소래 꽃게 낚시, 소래 전어 잡기, 새우 일병 구하기, 소래 구이장터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도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청도반시축제

- 날짜: 10월 18~20일
- 장소: 경북 청도군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감빛으로 익어가는 청도의 멋과 맛'을 주제로 열린다. 화랑학예경시대회와 차산농악 길놀이와 함께 주군의 사랑 '반시'란 주제극 공연이 진행되며 오광대놀이와 연극 '김자국씨 환장하나'도 공연 무대에 오른다. 청도반시 주제관과 감물염색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청도반시요리전, 청도반시 무료 시식과 품평회, 청도반시 마켓도 상시 운영된다.

◆양양연어축제

- 날짜: 10월 18~20일
- 장소: 강원 양양군 남대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어가 올라오는 이점을 살려 축제는 용왕제를 시작으로 연어 맨손 잡기 체험, 연어 요리 및 체험 행사, 연어 탁본 뜨기 등 41개의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연어 맨손 잡기 체험을 위해 양양군은 관내 한구에서 잡은 동해바다 연어 3500마리를 사용할 예정이며 먹거리 안전과 방문객 건강을 감안해 잡은 연어 시료에 대한 방사능 검출 검사도 마쳤다.

'미라클 두산'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노경은 6이닝 2실점·홍상삼 3이닝 무실점 이종욱, 2안타 2득점··정수빈 쐐기 적시타 LG 3루수 정성훈, 실책으로 결승점 헌납

두산 베어스가 가을야구 DNA를 마음껏 뽐냈다.

두산은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노경은의 호투와 이종욱·김현수의 활약을 앞세워 4-2로 승리했다.

두산 선발 노경은은 직구와 포크볼을 앞세워 맞혀 잡는 피칭으로 6이닝 4피안타 3볼넷 2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를 지지했다. 시즌 내내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던 홍상삼은 3이닝 무실점 역투로 LG의 추격을 따돌렸다.

공격에서는 준플레이오프에서 타율 0.16에 그쳤던 이종욱이 5타수 2안타 2득점을 올리며 톱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면 정규리그가 끝난 뒤 11일만에 실전에 나선 LG는 야수들의 타격감이 떨어진데다 위기에서 실책이 속출해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타자들은 8안타를 치는데 그쳤고 고참 정성훈이 결정적인 실책 2개를 저질렀다. 선발 류제국은 5⅓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며 4안타 2실점(1자책)으로 막았지만 투구수 조절에 실패해 일찍감치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준플레이오프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1, 2차전을 패하고 내리 3연승을 달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두산은 이날 경기 초반부터 LG를 몰아붙이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1986년부터 5전3승제로 벌어진 24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은 19차례나 한국시리즈에 진출, 시리즈 승리 확률 79.2%를 기록중이다.

경기후 김진욱 두산 감독은 "경기 초반 추가점을 내지 못해 어려운 경기가 됐으나 우리의 분위기가 좋았다"며 "기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원석과 김재호의 수비 덕분에 이겼다"고 말했다.

김기태 LG 감독은 "1회에 좋게 출발했는데 첫 경기라 그런지 선수들이 긴장한 것 같다"며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1, 2회를 끌려가다시피 됐다"고 평가했다.

두산과 LG의 플레이오프 2차전은 17일 오후 6시 역시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두산은 이재우, LG는 레다메스 리즈를 각각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플레이오프 1차전 (16일)

■잠실

두산	200	000	101	4
LG	200	000	000	2

△승=노경은(1승) 세=홍상삼(1세이브) △패=류제국(1패) △홈=이병규(7번·1회 2점 LG)

곰들의 점프 1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LG 트윈스를 4-2로 꺾은 두산베어스의 오재원, 허경민, 김재호가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뉴시스

이대호 몸값 '4년 194억'

소프트뱅크 제안할 듯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빅보이' 이대호(31, 오릭스 버팔로스, 사진)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닛칸스포츠는 16일 "내년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이대호가 오릭스에서 떠날 가능성이 크다"며 "자금이 넉넉한 소프트뱅크가 4년간 18억 엔(약 194억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오릭스는 이대호에게 2년 총액 7억 엔을 제시했다가 이대호가 거절하자 8억 엔으로 올려 제시한 바 있다.

닛칸스포츠는 한신 타이거스와 소프트뱅크가 이대호 영입에 나서면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소프트뱅크가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대호는 2년 연속 홈런 24개를 치고 91타점을 올리며 일본 무대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정성준기자

류현진 또 보고픈데…

"왜 그랬을까" LA 다저스의 닉 푼토가 1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 7회 말 공격에서 2루 견제사를 당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AP 뉴시스

다저스 챔피언십 1승3패 월드시리즈 진출 좌절위기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차전에서 패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다저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2013 NLCS 4차전에서 2-4로 패했다.

다저스 선발투수 리키 놀라스코는 3회초 홈런을 포함해 4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다.

다저스는 4회말 아드리안 곤잘레스의 2루타와 안드레 이디어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 2루 기회에서 야시엘 푸이그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이 2-3으로 뒤진 6회에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 듯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뉴시스

이어 A.J 엘리스의 적시타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7회초 구원투수 J.P 하웰이 셰인 로빈슨에게 솔로포를 허용해 무릎을 꿇었다.

다저스는 7전4선승제인 이번 시리즈에서 1승3패로 몰려 17일 5차전에서 패할경우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게 된다.

◆AL 보스턴은 1패 뒤 2연승

한편 이날 보스턴 레드삭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마이크 나폴리의 홈런 한 방으로 1-0으로 승리했다.

2차전에서 데이비드 오티스의 극적인 만루포와 재러드 살탈라마키아의 끝내기 안타로 대역전승을 거둔 보스턴은 시리즈 전적 2승1패로 앞서갔다. /정성준기자 ssh@

여자배구 흥국생명 국내 첫 치마 유니폼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여자배구단 최초로 치마 형태의 유니폼을 도입했다. 16일 흥국생명이 2013~2014 시즌에 걸쳐 공개한 유니폼은 바지처럼 보이는 스커트형 치마로 유럽 프로배구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참고한 것이다. /흥국생명 제공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How long did the movie last? 저녁 외출

긴 대화 훈련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Did you have a good time last night?
B 저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나갔어요.
A How was it? Did you like the play?
B Unfortunately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연극은 이미 시작해 있었어요.
A Oh, no! I am sorry to hear that

정답 I went out to see a play with my friends / by the time we got there the play had already begun

생생영어팁

▶We had a blast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blast는 '돌풍, 폭발' 등의 강한 의미를 갖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무척 즐거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Have a good time(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보다는 Have a blast!가 더 한층 강하게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내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We had a blast는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뜻의 속어 표현입니다. 비슷한 뜻의 표현으로 We had a ball이나 We had the time of our lives 등이 있습니다.

be동사 과거시제

▶과거의 상태, 직업 등을 얘기할 때 쓰며, 뒤에 명사, 형용사/전치사구 등이 올 때 ~였다, ~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I	was
you/we/they	were
he/she/it	was

▶핵심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I was so tired all day 저는 종일 너무 피곤했어요.
2. Alex was afraid of dogs 알렉스는 개를 무서워했어요.
3. Mr. and Mrs. Green were busy this morning 그린 씨 부부는 오늘 아침에 바빴어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Duties have been divided ______ among the town council committee members.
(A) even (B) evened
(C) evenly (D) evenness

02 Orders from the warehouse in Perth ______ arrive in five to seven days
(A) typify (B) typified
(C) typical (D) typically

01 시의회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업무가 균등히 분배되었다.
해설 수동태의 완료형 have been divided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부사인 evenly를 쓴다.
어휘 duty 업무, 책무 divide 나누다 committee 위원회 evenly 고르게, 균등하게 evenness 평등, 균등성
정답 (C) evenly

02 주문품들은 퍼스의 창고로부터 일반적으로 5~7일 뒤에 도착한다.
해설 주어 Orders가 바로 뒤의 전치사구로 인해 동사 arrive와 떨어진 문장 형태이다. 빈칸 뒤에 동사가 오므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부사 (D) typically를 써야 한다.
어휘 order 주문품 typify ~의 전형이다 typical 대표적인, 전형적인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정답 (D) typical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전치사 활용하여 읽기

Part 4에서 제시된 표에 있는 정보를 문장으로 답할 때는 단순히 장소와 숫자 등의 정보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나 시간에 맞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붙여서 답해야 합니다.

시간 전치사

at 시간에 주로 쓰입니다
at 4:30 P.M. 오후 4시 30분에 / at noon 정오에
at the beginning[end] of the meeting 회의 시작[끝] 무렵에

on 요일, 날짜, 특정한 날에 붙여 씁니다
on Tuesday 화요일에 / on May 15 5월 15일에

In 월, 연도 등의 앞에 씁니다
in August 8월에 / in 2014 2014년에

Tip 요일, 날짜, 연도를 같이 읽을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예) on Monday, June 4th, 2012
every day(매일), next Thursday(다음 주 목요일에), this morning(오늘 아침에), last night(어젯밤에) 등과 같이 전치사 없이 쓰이는 시간 표현도 있습니다.

5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분양전환형 명품임대아파트

단지 앞 소두방 공원의 웰빙생활 5년후 달라질 신도시의 미래가치!
정관신도시 그 어떤 아파트와 비교해도 자신있는
기화 정관타운을 기대하십시오!